

GWANGJU BIENNALE

#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저널 '소통의 장'

## 코로나 시대 SNS 등 비대면 홍보 주력 격월간 '떠오르는 마음' 2호 발행 예정

광주비엔날레가 선보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국영문 온라인 저널이 코로나 시대 미술담론 생산의 장이자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 측은 코로나 여파로 전시가 연기된 만큼 온라인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SNS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비대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되는 국영문 온라인 저널 '떠오르는 마음(Minds Rising)'은 전시를 미리 만나는 장으로서 인기를 끈다.

지난 5월 발행된 격월간 제1호 '떠오르는 마음'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진행된 리서치의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며 예술에 대한 속고는 물론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 간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다.

제1호에는 1편의 산문과 3편의 에세이를 비롯해 새롭게 제작된 영상작품이나 프라바츠키의 '멀티마스크'를 선보였다.

아나 프라바츠키의 '멀티마스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재충전하려는 의미에서 안전과 뷰티, 변신의 세 가지 기능을 지닌 멀티마스크를 소개하는 영상 작품이다.

연구자 고보혜의 에세이 '광주여성사, 치열한 기록만이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는 광주의 지역 여성사를 망라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한반도의 오랜 가부장제 속에서 분투했던 페미니스트들의 흔적을 기록한 흔치 않은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한국의 근대화, 독립,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 역사 서술, 서울 중심적 페미니즘 전개에 가려졌던 지역 여성의 활동상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미술가이자 시인인 세실리아 비쿠냐의 산문 '소리로 꿈꾼 비: 차학경을 읽으며'는 '딕테(Dictee)' 저서로 잘 알려진 미술가이자 시인, 사상가 차학경을 그리며 예도 등의 감정을 써내려 간다.

이밖에 미술가 오우티 피에스키와 고고학자 예바-크리스티나 하를린이 공동으로 북유럽 일대에 거주하는 유럽연합의 유일한 토착민 사미족을 재조명한 '어머니 대지로 돌아온 라조가피르: 사미족 여성과 식민주의의 영향'과 과학기술 연구자이자 저술가인 마야 인디라 가네쉬 사이보그 및 봇(bots)에 관해 페미니즘적 해석으로 풀어간 '육체 사이: 분리의 기술 단계' 등 두 편의 에세이를 만날 수 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에서 선보여진 아나 프라바츠키의 '멀티마스크'.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온라인 저널에서 선보이는 콘텐츠는 전시 기록과 함께 비엔날레 도록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제2호도 조만간 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홍보 강화에 나섰다. SNS로 소통하고 변경된 전시 일정 환기를 위해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게시물 리그램 및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전시가 연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온라인 채널

로 접촉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저널이 발행되며 SNS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2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73일간 개최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은 전시와 퍼블릭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출판물 등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현대미술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연수 기자

### 전남관광다카시 '제미진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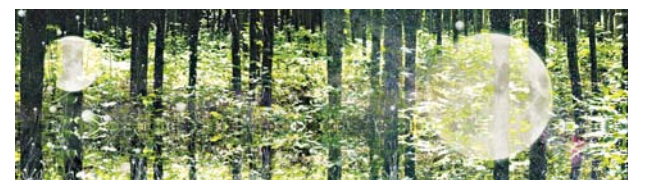
진도군 용장성

주광현

몽골과 맺은 강화조약  
약소민족의 치욕인가 설움인가  
삼별초 군의 대몽항쟁  
그날의 비문강개가 진도 땅 여기에  
흰 구름 한 조각 공굴터로 남았네.

### 문화 브리핑

-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특별기획전시 'THE Bunker' = 8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시장 (일·월 휴무)
- ◇오페라갈라콘서트 '영화 속 아리아를 좋아하세요?' = 11일 광주아트홀 (오후 7시 30분)
- ◇광산아트플러스 26 - 회복하심 : 손양욱 개인전 = 12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ACC 빅도어시네마 - 춤추고 노래하는, 7월 = 17-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금·토 오후 8시)
- ◇연극 '어쩌면...뷰티풀 라이프' = 18, 19, 25일 양림동 살림문화재단 (오후 7시)
- ◇SAC ON SCREEN - 라바이테르 = 2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5층 (오후 7시 30분)



- ◇박상화 초대전 '사유의 숲' = 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월-목 오전 11시 ~ 오후 8시, 금-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 (사진)
- ◇한평갤러리 세 번째 전시 '분할된 도시, 분배되지 않은 몫' = 25일까지 대인예술시장 내 한평갤러리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공휴일 휴무)
- ◇트로피제이 개인전 = 8일까지 담양 갤러리 아트14
- ◇'날 것, 그대로의 것' 전 = 8월 23일까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 백제확장기 마한사회 변화 학술총서 발간

전남문화재단, 학술대회 내용 정리

전남문화재단이 호남지역 역사의 뿌리인 마한이 백제의 유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정리한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와 백제의 유입' 학술총서를 발간했다.

전남도의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번 총서는 지난해 개최된 두 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본문은 권오영 서울대 교수, 최성락 목포대 명예교수 등 전국 각지의 마한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석해 '마한사회는 백제의 확장 정책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며 변화하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토론 결과가 수록됐다. 부록에는 마한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마한 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 학술대회를 정리한 것으로 구성됐다. /오지현 기자

## 국립광주박물관, '원데이 클래스' 개설

총 12인 창작자와 연계 분야별 창작활동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박물관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작가·문화예술활동가(이하 창작자)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매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는 창작자 총 12인을 선정했다.

이들은 ▲도예 ▲규광 ▲유리 ▲옷칠 ▲가죽 ▲지승 ▲칠보공예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창작·체험·소통 활동이 가능한 창작자들로, 박물관은 이들을 통해 전통의 새로운 문화 창조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

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직접 박물관 문화재와 연계한 새로운 창작품을 분야별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총 12인의 작가와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박물관 원데이 클래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며,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 인원을 선발한다. 접수는 매일 첫 번째 화요일부터 시작하며, 선착순 20명 마감된다. /오지현 기자

www.okimscom.com

# 모두가 바라보는 별이 되도록!

별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 두셨다가,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사막을 여행하실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이 있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이미 커다란 별이 되어 있겠군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요.

「오컴엔커뮤니케이션」은 광고기획 및 제작, 매체기획 및 구매, 온라인광고대행, 옥외광고, 프로모션, 마케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오컴엔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802호 T. 02)3445-3224, F. 02)3445-3216